



제69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0월 5일)

신라 마립간시기 왕릉과 황금장신구

윤상덕, 108호 신라실 18:00~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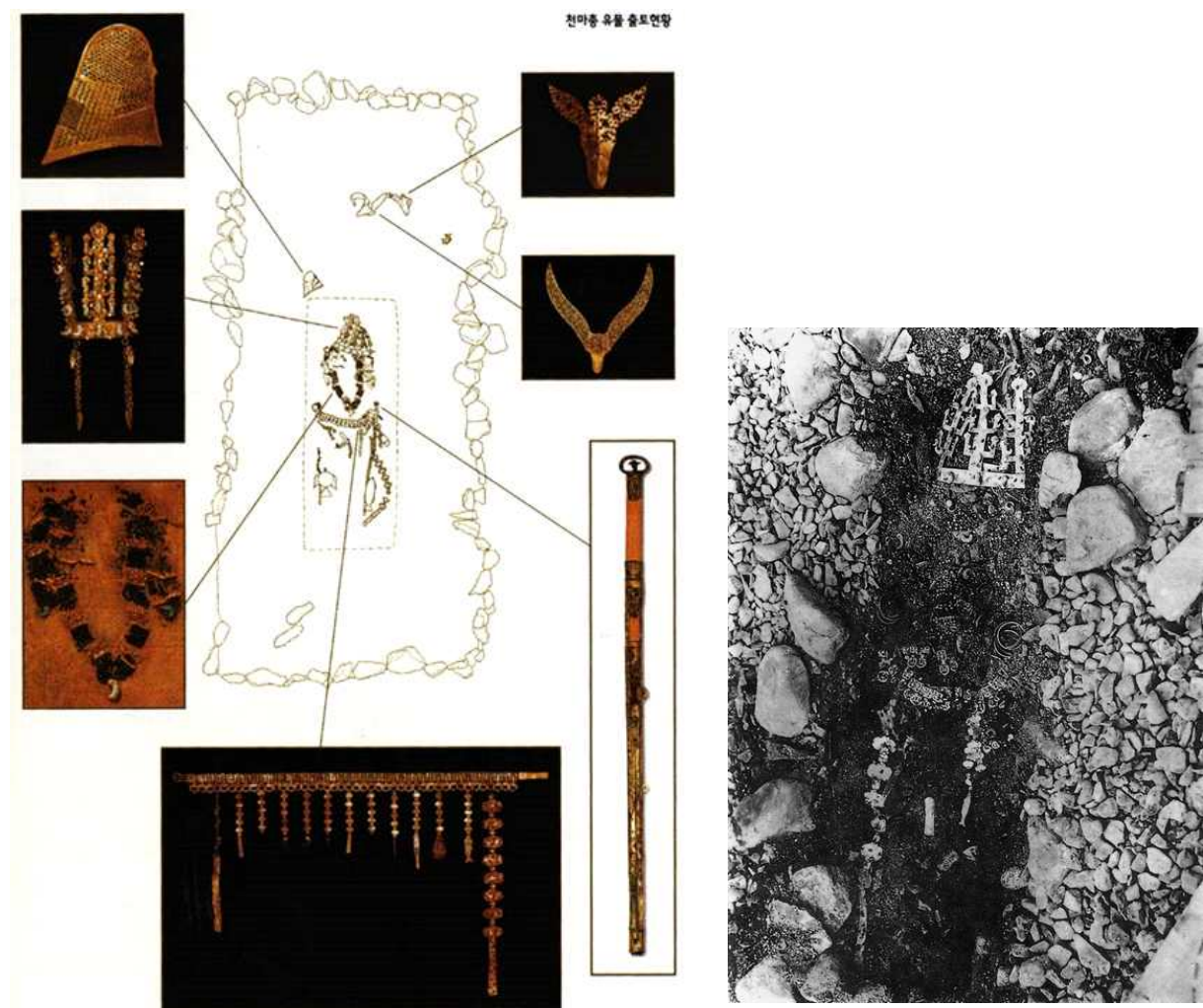
『일본서기』에는 신라를 ‘황금의 나라(눈부신 금은채색의 나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1921년 금관총金冠塚에서 처음 금관이 발견된 이래, 금령총金鈴塚, 서봉총瑞鳳塚, 천마총天馬塚, 황남대총皇南大塚, 교동校洞에서 6개의 금관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금제 모관帽冠, 금귀걸이, 금목걸이, 금반지, 금그릇 등 수없이 많은 금제품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제품은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에서 주로 출토됩니다. 이때는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의 6명의 왕이 재위한 시기이고 학계에서는 마립간시기라고 합니다. 돌무지덧널무덤에 묻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왕릉 또는 왕릉급 무덤에서는 금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금제 장신구가 집중적으로 출토됩니다. 고구려, 백제 등 주변국과 비교하면 그 황금유물의 양이 엄청나서 가히 ‘황금의 나라’라는 별칭이 수긍이 갑니다.

이 황금 장신구는 죽은 자를 치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릉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발굴결과를 보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금제 허리띠를 찻습니다. 허리춤에는 용과 봉황으로 장식한 큰칼을 찻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반지와 팔찌는 물론 금귀걸이를 달았고 여러 가지 목걸이를 하고 금동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러한 치장은 강력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금제 허리띠에 매달린 여러 가지 물건들은 말을 즐겨 타는 유목(기마)민족의 성격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살아 있을 때도 이렇게 치장하고 있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예컨대 금관과 금제 허리띠는 무겁고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썼거나 죽어 묻힐 때 함께 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신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묻힌 사람의 신분과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금관은 왕과 왕비, 그리고 최상위 왕족만이 쓸 수 있었습니다. 금관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 금 허리띠를 했고 모든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그 다음 계급은 관과 허리띠에 금을 사용 못하고 금동, 또는 은을 사용합니다. 계급이 내려가면서 최상층이 하는 장신구에서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요소가 제외됩니다. 성별은 귀걸이로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고리 귀걸이와 굵은 고리 귀걸이로 나뉘는데, 긴 칼

을 찬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고리 귀걸이를 하였고 남성 뼈도 발견된 사례가 있어 전자는 남성, 후자는 여성이 찼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당시 신라 왕은 지방의 우두머리에게도 이러한 귀중품[威勢品]을 나누어 주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형 무덤에서도 적잖은 황금유물이 발굴됩니다. 금동관金銅冠이나 귀걸이, 큰칼[大刀]이 그것입니다. 금동관은 대구, 경산, 의성, 부산 뿐 아니라 강릉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신라의 영향력이 미친 범위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신라는 지방 수장들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정치력으로 지방을 점차 차지하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황금유물을 부장하던 풍습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서 차츰 사라집니다. 6세기 중엽부터의 일입니다.





제69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0월 5일)

테마전 <영원한 삶의 집, 아스타나 고분> (2)

권영우, 307호 중앙아시아실 18:00~18:30

아스타나 고분은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투루판시에서 동남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투루판의 옛 도성유적인 고창고성의 북쪽 근교에 조성된 지배계층의 공동묘지로, 고창고성이 번영했던 국씨고창국 시기(502~640년)와 당나라 지배기(640년~8세기 후반) 동안 많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초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하는 실크로드 탐험대들이 이 아스타나 고분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1959년부터는 중국 신장박물관이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금까지 400기가 넘는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폐쇄된 무덤 공간과 투루판의 매우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이곳에서는 복희와 여와 그림, 나무와 흙으로 만든 인형과 토기, 음식, 종이문서 등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나왔고, 심지어 대부분의 시신도 미라의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세기 초 일본의 오타니[大谷] 탐험대가 아스타나 고분에서 수집한 85점의 전시품에 대한 조사 성과를 특별 공개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의 특색은 부장품의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전시품을 널방, 널길, 옆방으로 구분된 무덤의 내부 공간에 따라 분류하여 전시한 점입니다.

먼저 널길 양쪽에 마련된 옆방에 두었던 인형들을 전시했습니다. 문인, 무인, 환관, 여인, 악사 등 다양한 인형들은 죽은 자의 생활을 돕는 시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인형들의 발아래에는 나무심이 빠져나와 있는데, 이 뾰족하게 나온 나무심을 무덤 흙바닥에 박아 인형을 세워두었습니다. 전시에서는 흙과 비슷한 색과 질감의 받침대에 다양한 인형들을 자연스럽게 배열하여 무덤 현장의 느낌이 가깝게 연출했습니다. 인형들 가운데 <말을 탄 무인상>은 말과 인형의 상반신, 하반신이 파편으로 남아 있던 것을 접합해 새롭게 전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복원 과정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 조사로 드러난 상의 제작 방법도 소개합니다.

죽은 사람이 안치되었던 널방에 있었던 부장품으로 명기와 나무 받침, 복희와 여와 그림, 그 밖의 다양한 부장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는 <구슬무늬 명기와 나무 받침>은 191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입수되었을 때의 자료에 근거해 명기와 받침이 한 벌의 구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명기에는 포도, 호두, 밀로 만든 과자 등의 다양한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머리맡에 놓인 이 상차림은 저승에서 영원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성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이 소장한 세 점의 복희와 여와 그림 가운데 가장 큰 〈복희와 여와 그림〉을 특별 공개했습니다. 중국 고대의 천지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복희와 여와가 그려진 그림은 투루판 지역에서 6세기부터 8세기 중반까지 많이 만들어져 주로 무덤 널방의 천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미터가 넘는 복희와 여와 그림을 실물 크기로 복제하여 전시실 천장에 매달아 무덤 내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두 신이 각각 들고 있는 컴퍼스와 구부러진 자는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으로 이루어진 우주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창조신이 서로 몸을 꼬고 있는 모습으로 우주와 만물이 생겨나는 것을 상징하는 이 그림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 다음 세상에서 풍요롭기를 바라는 투루판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림1. 말을 탄 무인상, 투루판 아스타나 고분, 7~8세기, 높이36cm



그림2. 구슬무늬 명기와 나무 받침, 투루판 아스타나 고분, 6~7세기, 받침 길이 83cm



그림3. 복희와 여와 그림, 투루판 아스타나 고분, 7세기, 100×238cm



제694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0월 5일)

신라 금관의 제작기술

신용비, 108호 신라실 19:00~19:30

신라의 왕족들이 묻힌 무덤은 시신을 안치한 목관木棺과 부장품副葬品을 넣은 상자를 넣은 후 그 바깥쪽에 목곽木槨을 설치한 다음 돌을 쌓았으며, 그 위에는 다시 흙으로 큰 봉분을 덮은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라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대형 무덤에서는 금관이 발굴되었는데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의 금관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천마총의 5점과 교동에서 도굴된 1점 등 모두 6점입니다.

신라 금관의 금순도를 분석해 보니 금관 6점은 모두 금과 은으로 합금되어 있었고, 세움장식 금관 순도를 무덤별로 나열하면 교동 89.2wt%, 황남대총 북분 86.2wt%, 금관총 85.4wt%, 천마총 83.5wt%, 금령총 82.8wt%, 서봉총 80.3wt% 순으로 함량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봉총 금관 내면에 반구형 장식판과 봉황장식판의 금함량은 73~74wt%로 금관의 외연인 입식과 대륜 금관보다 금순도가 6~7wt%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관의 형식에 따른 제작 연대와 비교해보면 금관 중에서 가장 고식古式인 교동 금관이 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세기 중후반에 축조된 황남대총과 금관총의 합금비가 유사하였고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의 천마총, 금령총, 서봉총의 순으로 빠른 시기의 무덤일수록 금관의 순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시중인 황남대총 북분 금관은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며 주검의 머리 부분에 씌워진 채 출토되었습니다. 황남대총은 신라에서 가장 큰 무덤으로 왕과 왕비의 무덤을 서로 연결하여 축조한 표주박형 무덤[雙墳]입니다. 왕비의 금관은 지금까지 출토된 ‘出’ 자모양 세움장식의 금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3개의 나뭇가지모양[樹枝形] 장식과 2개의 사슴뿔모양[鹿角形] 장식을 관테의 안쪽에 덧대어 금못 3개를 세모꼴로 박아 고정시켰습니다. 관테에는 상하의 가장자리에 2줄의 연속점무늬[點列文]와 물결무늬[波狀文]를 1줄씩 표현하고 그 가운데에는 1열로 굽은옥[曲玉]을 매달았습니다. 세움장식의 곁가지는 3단으로 되어 있고, 굽은옥이 일정한 간격으로 1개씩 달려 있습니다. 각 단에는 비취 굽은옥이 5개씩 달려 있어 매우 화려합니다. 관테의 앞면에는 모두 6개의 굽은 고리 드리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림1. 교동 금관



그림2. 향남대충 복분 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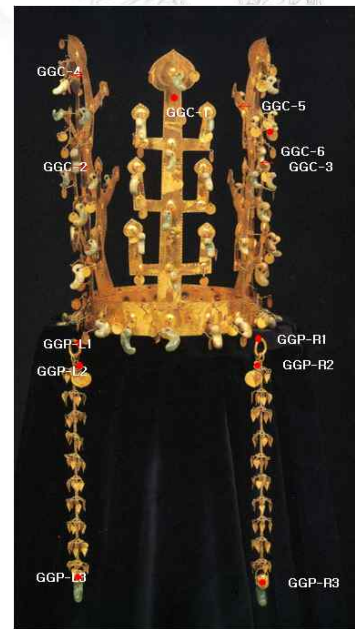


그림3. 금관총 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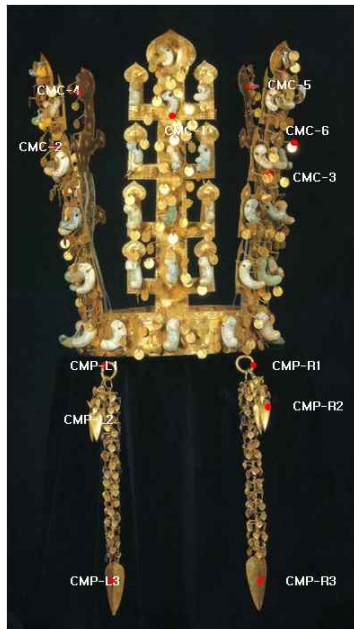


그림4. 천마총 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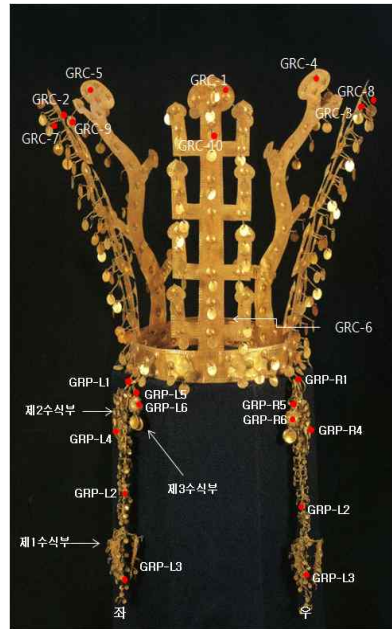


그림5. 금령총 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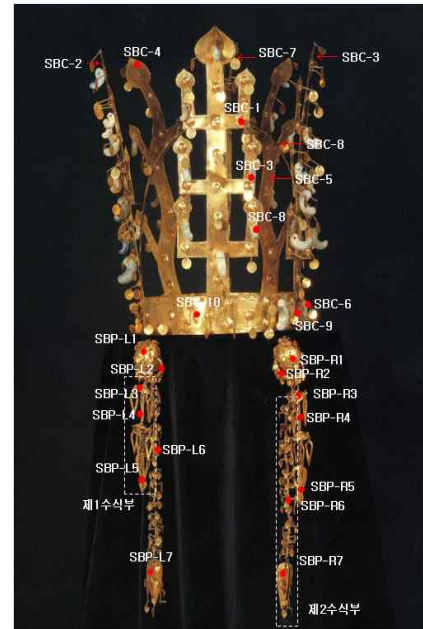


그림6. 서봉총 금관

인도의 불비상

-한 눈에 보는 부처님의 삶-

노남희, 308호 인도·동남아시아실 19:00~19:30

여기 불비상佛碑像이 하나 있습니다. 약 1000년 전 인도 동북부에서 만들어진 이 작은 조각은 부처의 삶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인도 불교도들은 자신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준 위대한 선각자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여덟 개의 사건을 골라 돌 위에 정연하게 배치하고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며 부처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믿음을 다지는 간접적인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림1. 불비상, 약 10세기,
석조, 높이 40.6cm

열반		
도리천 설법 후 내려옴	성도(깨달음)	술 취한 코끼리를 길들임
첫 설법		기적을 보임
탄생	후원자 등	원숭이가 꿀을 바침

표1. 주제별 배치

각 장면은 최소한의 표현으로도 알아볼 수 있게끔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깨달음의 장면이 제일 크고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습니다. 광배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불교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연기법송緣起法頌을 새겼습니다. 장면의 구성과 표현, 연기법송을 새긴 점 등은 이 시기 동인도 불교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